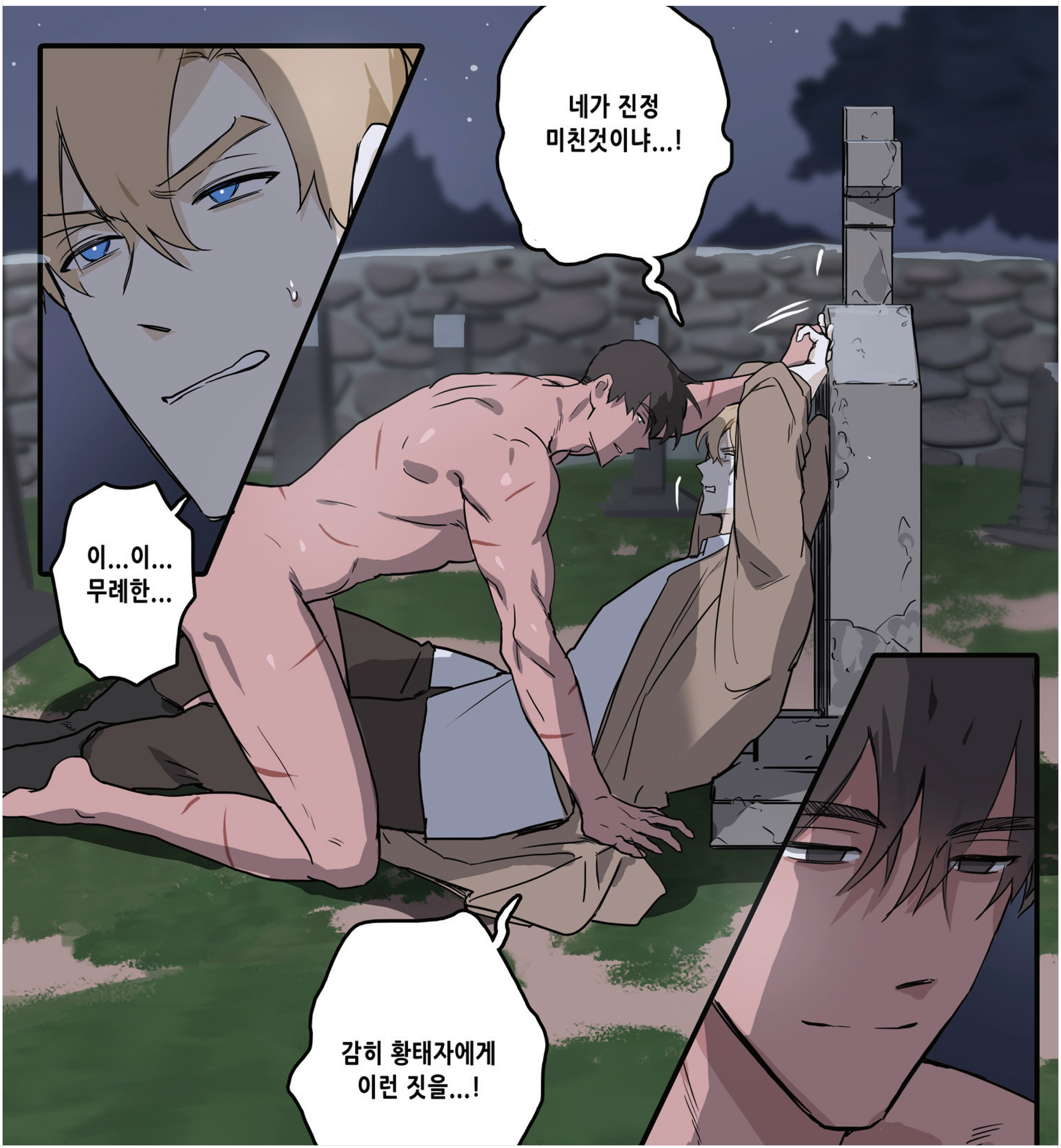
네가 진정
미친것이냐...!
이...이...
무례한...
감히 황태자에게
이런 짓을...!

한시간 전

지치지도 않고
또다시 용사의
마을에 찾아온
황태자

아무리 기다려도
용사가 나타나지 않자
황태자는
마을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용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왜이리
집에 붙어있질
않아!

성큼

성큼

한밤에
공동묘지까지
헤매게 만들다니...

만나면
혼을 내주마

!!!
오
용사인가?
우연히
만나는군
일이 있어서
이 근방을
지나던 중이었다
저 뒤통수는
틀림없는
용사다...!
막상 보니
반가워
화를 내려던 것을
잊은 황태자

그러나 용사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장난기 많은
밤의 정령에게
홀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무,무슨...!
큿...
이,일은...
쉽
할짝
할짝
쭈웁
그,그냥 넘어가지
않을것이다...!
읏...!
그,그만...
이...
천박한 놈...!
윽...

흐읏...
즈끙
윽...
즈끙
즈끙
아♥
아♥
즈끙
하아...
앗...!
앗
이...이
음탕한 용사 놈이
감히....!
이자식...
읏...
덜렁♥
덜렁♥
아♥
즈끙
감히...!
앗...!

조끗
"팡"
오...?!
으흐흐
팡
쿳...
조끙
요,용사
따위에게
주도권을
뺏기진 않겠어...!
뿍
팡
뿌뿍
뿌뿍
팡
으흐흐
팡
황태자는 괘씸한 마음에
용사의 깊숙하고
부드러운 곳을
거듭해서 방망이질 하였고
용사는 강한 자극에
성기에서 묽은 것을
몇번이고 쏘아댔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용사는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
…
……
…
……
……
피슷
피슷
용사는 간곡히
용서를 빌었는데
황태자는 어쩐일인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었다
END